

독일의 대학입시제도 고찰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강 이 화



I. 독일의 교육제도 이해

독일의 교육제도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이한 점이 많다. 특히 기본법에 명시된 각 연방주의 교육자치권 원칙(Bildungshoheit: Länderhoheit im Schulwesen)에 따라 교육제도는 주 정부의 사안이다. 즉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고 각 연방주별로 실정에 따라 교육체계를 세우고 정책을 집행한다.

다만 각 주의 교육정책을 비교하고 연방차원의 최소한의 일치와 합의를 위해 '주 교육부장관 상설회의(Kultusministerkonferenz)'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초·중학교 및 대학교는 90% 이상이 국·공립이므로 독일의 학교교육은 거의 공교육이라 할 수 있고 각 학교급의 동일한 학교형태인 경우(김나지움 간, 실업학교 간, 국립대학교 간)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다. 그리고 독일의 학교교육은 초등학교

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¹⁾

독일의 이러한 교육 공공성은 1960년에 유럽에 일었던 사회운동과 함께 지식인·학생들이 함께 대학 개혁안을 만들고 학문의 자유를 위해 교육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정립한 데에 그 배경이 있다.

독일의 학교체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일부²⁾를 제외하고 4년제이며 초등학교 졸업 후 학생들은 김나지움(Gymnasium), 실업학교(Realschule), 주요학교(Hauptschule) 등 다양한 형태의 중등학교로 진학한다. 이때 김나지움은 인문계 중등교육기관이라 말할 수 있으며 중등 1단계교육과 중등 2단계 교육으로 구성된다. 일정 자격 이수 후 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해당하는 아비투어(Abitur)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이다. 실업학교는 직업기초교육을 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전문직업학교에서 직업전문 교육과정을 밟거나 김나지움의 중등 2단계 교육과정인 오버슈투페(Oberstufe)로 진학할 수 있다. 주요학교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

II. 독일 대학입시제도의 배경 및 특징

독일에서 대학진학률은 2010년까지는 유럽의 진학률 평균인 약 45%였으나 2012년에는 약 5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독일통계청).³⁾

그럼에도 독일 대입제도의 특징은 대학간 서열이 없고⁴⁾ 교육의 기회 균등 제공을 지향하는 원칙이 강하다. 독일 대입에서는 중복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독일 전체에서 10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고, 한 대학에 6개 전공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입 지원 전형료는 없다. 가고자 하는 대학에 자리만 있으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편입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학과가 정원 제한이 없어,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일정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allgemeine Hochschulreife)을 갖추어 대학입학원서를 제출하면 진학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일부 입학 정원제한 학과의 경우에도 각 대학은 아비투어 성적으로 20%, 대기기간⁵⁾을 고려하여 20%를 모집하고, 이후 나머지 60%의 학생을 대학이 자유롭게 선발하고 있다.

¹⁾ 2005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대학 등록금 합법 판결 이후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이 생겨나 2006년 독일 16개 주 가운데 니더작센, 바이에른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5개 주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등록금 제도를 도입했다가 2014년 10월 현재 모두 연방주가 등록금제를 완전 폐지하였다.

²⁾ 베를린주, 브란덴부르크주는 6년제이다.

³⁾ 혹자는 그 원인을 유럽 통합에서 찾기도 한다. 독일 외 EU나라들 가운데는 대학교육을 통한 높은 사회적 지위 획득에 대한 믿음이 큰 경우가 많아 유럽연합이 고학력자 중심 사회가 되어간다는 보고도 있다.

⁴⁾ 물론 독일정부도 국제적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해 국제대학평가 등에 반응하기 위해 2006년 이후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하나로 'Exzellenzinitiative'를 통해 소위 '엘리트대학'이라 불리는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대학입시에서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은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2).

⁵⁾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유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자격을 미리 획득했으나 군입대, 취업 혹은 개인적 이유 등으로 지연된 경우 혹은 취업 등의 이유로 늦게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한 경우의 학생을 의미하며, 일정 부분 재수생의 의미와 겹쳐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외고등교육동향

이에 각 대학은 아비투어 성적, 전공과 관련한 특정과목의 가중치, 전공과 관련한 학업능력, 직업교육 경력, 면접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BMBF,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각 대학들은 신입생 가운데 51%는 아비투어 성적으로, 25%는 대기 기간을 고려하여, 24%는 대학 자체선발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통적인 독일의 대입 선발 방식인 내신 성적과 아비투어 성적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KMK, 2014; 김상무, 2014).

III. 독일 대학입시전형 이해

1. 입시전형 종합

독일대학에서 신입생 선발을 위한 주요 입시전형은 내신 성적과 아비투어(Abitur) 성적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비투어 점수 산정에 학교 내신 성적이 포함되는 형식이다. 즉, 아비투어 성적의 만점은 900점으로 학교내신 600점과 아비투어 시험 300점을 합친 점수이다. 대학에 원서를 제출할 때는 이 900점을 1~4점의 학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제출한다.

독일 입시 종합 점수(총점 900점) = 내신 성적 600점 + 아비투어 성적 300점

1) 내신 성적(600점) = (오버슈투페 4학기 획득 점수 총계 ÷ 전체 과목 수) × 40

2) 아비투어 성적(300점) = 5 또는 4(응시 과목 수 따라) × 점수

표 1 | 입시종합점수에 따른 최종학점

전체 점수	학점						
823-900	1.0	679-696	1.8	353-552	2.6	391-408	3.4
805-822	1.1	661-678	1.9	517-534	2.7	373-390	3.5
787-804	1.2	643-660	2.0	499-516	2.8	355-372	3.6
769-786	1.3	625-642	2.1	481-498	2.9	337-354	3.7
751-768	1.4	607-624	2.2	436-480	3.0	319-336	3.8
733-750	1.5	589-606	2.3	445-462	3.1	301-318	3.9
715-732	1.6	571-588	2.4	527-444	3.2	300	4.0
697-714	1.7	553-570	2.5	409-426	3.3		

* 출처 : 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2014).
Merkblatt zur Berechnung der Gesamtqualifikation gemäss APO-GOST B. : 2.

2. 내신 성적

내신 성적은 중등 2단계 교육과정인 오버슈투페(Oberstufe)⁶⁾성적을 의미한다. 오버슈투페의 과목은 필수과목, 선택과목, 개별 중점과목의 3가지 분야로 나뉘며, 과목은 언어 · 문학 · 예술 분야(독일어,

외국어, 문학, 미술, 음악 등)와 사회과학 분야(역사, 정치, 사회, 지리, 경제, 법, 철학 등), 수학·자연과학 분야(수학, 생물, 화학, 물리, 정보학, 기술 등), 주 교육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스포츠, 종교 혹은 대체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KMK, 2013: 7-9).

오버슈투페에서 수강한 과목은 0에서 15점까지의 원점수로 기록되며 각 원점수는 1(최우수)-6(낙제)등급으로 구별되며 A(최우수)에서 F(낙제)로 표기되기도 한다.

내신성적에 포함되는 자격획득 단계 4학기 동안 학생들은 우선 의무과정을 포함하여 최소한 기본과정 30개, 능력과정 8개 총 38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그 38개 과목 중 0점을 받은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수강과목 가운데 35~37개 과목이 이수처리된 경우 5점 미만(D미만)을 받은 과정이 최대 7개 이하여야 한다. 특히 그 가운데 능력과정에서 5점 미만을 받은 과정은 3개 이하이어야 한다. 혹은 38~40개 과목이 이수처리된 경우 5점 미만(D미만)을 받은 과정이 최대 8개 이하여야 한다. 특히 그 가운데 능력과정에서 5점 미만을 받은 과정은 3개 이하이어야 한다.

아비투어 응시학생들은 자신이 수강한 과정 가운데 내신에 포함할 35개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35개 과정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 평균을 도출한다. 이때 능력과정은 두 배로 계산된다. 자신이 내신성적 평균 도출을 위해 선택한 35개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과정 가운데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과정이 있다면 추가로 합산할 수 있으며, 5개 과정까지 추가로 합산하여 내신 점수를 높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추가된 과정 점수까지 합산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점에 과정 수를 나누어 40을 곱하는 공식에 따라 전체 내신성적을 도출하게 된다.

3. 아비투어

아비투어 시험은 16개 주 교육부가 각자 출제한다. 4과목 혹은 5과목을 치른다. 일반적으로 최근의 아비투어 시험과목은 4과목이며 독일어, 수학, 외국어 중 2과목을 고르고 나머지 2과목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본인의 이수과목 중 선택한다.⁶⁾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학기 이상 소요하여 작성한 주제 탐구과제(besondere Lernleistung) 수행시 5과목으로 산정되고 최대 30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함께 구두시험으로 치러진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3과목은 필기시험으로, 1과목은 구두시험으로 실시된다. 필기시험은 전부 논술형이다. 과목당 3~4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필기시험은 짧으면 2주, 길면 4주간의 시기 안에 과목별로 치러진다. 구두시험까지 모두 끝나는 데는 보통 2개월이 걸린다.

시험 채점은 학교 교사가 하고, 다른 교사가 한 차례 더 점검한다. 외부 기관에 채점을 맡기는 일은 없다.

⁶⁾ 보통 중등학교 11~12학년때로 우리나라의 고2~고3으로 비교될 수 있다.

⁷⁾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선택과목으로 라틴어와 화학을 선택할 수 있다. 라틴어는 의학 용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며 화학 역시 의대 학업의 준비를 위해서이다.

해외고등교육동향

전통적으로 아비투어는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2002년 PISA평가에서 독일이 저조한 결과를 보인 이후, 독일교육도 개혁의 움직임이 일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로 주정부 주관의 중앙 아비투어(Zentralabitur)를 도입하는 연방주가 늘고 있다.

아비투어 시험 결과 보고는 첫째, 아비투어 과목인 총 4개의 과목에 대해 각각 15점 만점으로 채점된다. 둘째, 4개의 과목 시험만 치르는 일반적인 경우 각 과목의 성적에 5를 곱한다. 그러나 특별한 주제 탐구과제 리포트 수행시 5과목으로 산정되어 각 과목의 성적에 4를 곱한다. 마지막으로 총점을 합산한다. 위 두 경우 모두 총점은 최저 100점에서 최고 300점이 된다. 이를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아비투어에서는 최소 100점을 넘어야 졸업 및 대학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표 2 | 아비투어 시험성적 산정 방법

특별한 과제 수행 없이 4과목으로 산정하는 경우				특별한 과제 수행시 5과목으로 산정하는 경우			
과목	×(최하점·최고점)	×5	=총점	과목	×(최하점·최고점)	×4	=총점
기본 1	5-15	5	25-75	기본 1	5-15	4	20-60
기본 2	5-15	5	25-75	기본 2	5-15	4	20-60
심화 1	5-15	5	25-75	심화 1	5-15	4	20-60
심화 2	5-15	5	25-75	심화 2	5-15	4	20-60
				특별 과제	5-15	4	20-60
총합			100-300	총합			100-300

* 출처 : Ministerium für Schule und Weiterbild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2014).
Merkblatt zur Berechnung der Gesamtqualifikation gemäss APO-GOST B.: 1-2.

4. 그 외 독일대학의 대학입학 전형 요소

내신성적과 아비투어 성적 외에 독일의 개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살펴보는 전형 요소는 다음과 같다. 아래 조사는 중북 요소가 포함되었는데, 대부분의 대학과 전공인 약 82%가 내신성적과 아비투어 성적의 총점을 환산한 학점으로 학생을 선발하나, 약 37%가 대기기간, 약 21%가 직업경험증명서, 약 18%가 특정과목점수, 8%가 면접점수를 요구하며, 그 외 논술 및 전공별 개별 시험을 치르는 비율은 아주 미비하다(Heine 외, 2006: 39). 이 추세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대부분의 대입전형 요소의 핵심은 전통적인 아비투어 총점 환산 학점이다(Taeger, 2010).

표 3 | 독일대학의 대입전형 요소

구분	전형 요소	빈도	비율
1	내신성적과 아비투어 총점 환산 학점	3428	81.7
2	특정 과목 점수	745	17.7
3	외국어 시험	141	3.3
4	실기 시험(음악, 예술)	811	19.2

구분	전형 요소	빈도	비율
5	내신 과목 이해도 테스트	15	0.4
6	희망 전공 관련 이해도 테스트	106	2.5
7	일반 학업적성 테스트	43	1.0
8	희망 전공 관련 학업적성 테스트	140	3.3
9	인성 테스트	29	0.7
10	지능 테스트	29	0.7
11	면접	340	8.1
12	자기소개서	216	5.1
13	추천서	30	0.7
14	평가센터를 통한 평가	30	0.7
15	직업 경험 증명서	891	21.1
16	대기 기간	1562	37.1
17	중학교 졸업 성적	0	0
18	교외 활동	125	3.0
19	지원 포트폴리오	16	0.4
20	전공 관련 선수학습	52	1.2
21	외국체류경험	34	0.8
22	나이	10	0.2
23	직업교육 증명서	16	0.4
23	건강검진증명서	8	0.2
24	기타	4	0.1

* 출처 : Heine, Ch. u. a.(2006). Auswahl- und Eignungsfeststellungsverfahren beim Hochschulzugang in Deutschland und ausgewählten Ländern. Eine Bestandsaufnahme. : 39

5. 대기학기제

독일 대학 입시에는 대기학기제라는 제도가 있다. 한 학생이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지원을 했으나 떨어지고 다른 대학보다는 그 특정 대학에 꼭 입학하기를 원하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고 기다리면 된다. 대학은 그 다음 신입생 선발 때 대기자 명단에서 일정 비율을 뽑는다. 오래 기다릴수록 해당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모든 독일 대학은 대기학기제를 운영한다. 몇몇 인기 학과는 대기학기제가 더 엄격히 적용되어 보통 정원의 20% 정도가 대기자 몫으로 할당돼 있다.

대입에서 탈락해 이른바 대기학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고 입학할 때도 시험을 다시 치를 필요는 없다. 또한 대기하는 기간에는 직업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IV. 독일의 대학입시제도가 우리나라 대학입시정책에 주는 시사점

독일의 대학입시제도를 고찰해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아주 새로운 부분도 있다. 물론 각 나라의 정치·사회·역사적 배경의 차이와 그에 따른 교육제도의 차이에 따라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고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입시정책의 변화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도 몇 가지 있다.

첫째, 독일은 대학입학전형에서 내신성적과 아비투어성적을 2:1의 비율로 산정하는 점에서 공교육 현장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한 시기의 한정된 문제로 시행되는 평가 아비투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평소의 학교학습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도 중요하다고 보는 사회적 합의인 셈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전형과 입학시험에 대한 우려가 고교 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돋보이는 특징이다.

둘째, 독일대학의 대입전형 요소의 핵심은 전통적인 아비투어 총점 환산 학점으로 그 외 논술 등 대학개별시험을 치르는 비율은 아주 적다는 점에서 대입전형이 간소화되어 학생 부담이 적고 학교교육 외 사교육 문제가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국가는 독일의 개별 대학에게 입시정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내신성적과 아비투어 환산 학점에 대기기간을 주로 참고하는 정도로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들은 내신과 아비투어가 실시되는 학교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아비투어에서 4~5과목으로 시험과목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필수과목과 함께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연계가 강한 영역은 심화시키는 반면 다른 영역은 기초수준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넷째, 독일은 내신성적 평가에서부터 아비투어의 평가유형이 모두 각 평가의 목표에 입각한 준거지향 평가, 즉 절대평가인 점과 평가방법은 필기시험과 함께 구두시험이라는 점, 또한 필기시험 역시 논술형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내신 평가에서는 교과이해에 대한 지필평가 외에 학급 활동 참여 및 특별활동 참여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구두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이 없고 협력하는 학습 분위기가 형성이 가능하다. 각 대학별로 치르는 별도의 적성검사시험 역시 해당 전공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술 평가로 이루어지므로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거나 문제 해결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대학입학의 주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배우고 준비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대입제도 평가 방식이 창의성과 인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학생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커져 고교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사례가 그 도입·적용의 모범이 될 수 있다.

필자소개

강이화 |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독일 괴팅겐대(Georg August Universitaet Goettingen)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위촉직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BK플러스사업단 '미래지향적 교육디자인 양성 사업단'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국제이해교육과 신식민주의 비평』(공저) 등이 있으며, 『고등교육에서 학제성(Interdisciplinarity) 연구』,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고찰』, 『강사제도 추진 과정의 쟁점과 요인 분석』,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연구』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융복합 학제적 교육과정,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교수 및 성인학습자 연구, 질적연구법 등이다.